세월호 기름 유출 피해 어민 국가 보상

피해 보상금 70억 국무회의 통과
내달 14일 피해 보상 절차 시작

내달 14일부터 세월호 선체 인양 과정에서 유출된 기름으로 피해를 입은 어업인에 대한 보상 절차가 이뤄진다.

21일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에 따르면 이날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세월호 관련 인양 후속조치, 인적배상금 및 인양 유류오염 피해 보상금 등으로 약 70억원의 예비비 예산안이 통과됐다.

앞서 세월호피해지원법이 개정됨에 따라, 세월호 선체 인양 과정에서 유출된 기름으로 피해를 입은 어업인이 국가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또 법 시행일인 6월14일부터 보상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동 법 시행령 개정작업도 6월초 마무리될 예정이다.

법 시행일 이후 어업인은 6개월간 피해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정부는 120일 이내에 배·보상심의위원회의 사실조사 및 검토·의결을 거쳐 피해민에게 결정서를 통보해야 한다.

이후 피해어민이 결정서에 동의 및 보상금 지급신청을 하면 정부는 30일 이내에 보상금을 지급해야 하는 절차로 보상이 진행된다.

보상대상은 유류오염과 관련 ▲수산물 생산 및 판매감소 ▲어업활동의 실기로 입은 손실 ▲어구가 오염되거나 망가져 입은 손실 등이다.

아울러 해수부는 보상이 시작되는 6월14일 이전에 피해어민들에게 보상 진행 절차를 설명한다.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해당 지자체와 함께 지역대표자 간담회 및 현장 설명회 등을 실시하고 보상금 신청서도 현장에서 접수할 계획이다.

김재영 해수부 배보상지원과장은 "세월호 인양 유류오염 피해보상을 위한 절차적·재정적 준비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며 "향후 진행될 보상에서 어민들이 최대한 신속하고 합리적으로 보상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뉴시스

행안부, 재난 발생시 자원봉사 운영 일원화

행정안전부(행안부)는 22일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을 구성·운영하고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이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운영지침(매뉴얼)을 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대규모 재난 발생시 자원봉사활동의 일원화된 조정과 배분을 위해서다.

그동안은 대규모 재난이 발생하면 재난현장에서 활동하는 많은 자원봉사단체간 활동 협의나 조정이 이뤄지지 않아 특정 분야나 시간에 집중되는 현상이 발생했다.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은 재난현장에서 대부분의 자원봉사자를 관리하는 자원봉사센터와 대한적십자사를 중심으로 구성된다. 재난현장에 유입되는 모든 자원봉사단체의 활동을 배분·조정한다.

특히 자원봉사단체들이 무분별하게 활동하지 않도록 지방자치단체의 현장통제 안에서 통합자원봉사지원단으로 모집·배치를 일원화한다. 자원봉사단체의 선호분야·특성도 고려해 배치함으로써 특정분야·시간·구역에 자원이 몰리는 것을 방지한다.

또 현장에서 활동하는 자원봉사단체와 매일 자원봉사활동이 종료된 후 조정회의를 거쳐 그날 자원봉사활동을 평가하고 다음 날 자원봉사활동에 대해 조정한다.

통합자원봉사지원단 운영지침은 재난현장에 유입되는 자원봉사단체·개인의 체계적인 배분과 활동 조정에 초점을 맞춘다.

지원단 설치시기는 재난현장에 대규모 자원봉사활동 수요가 증가해 지자체가 요청하는 경우다. 장소는 안전하고 가시성이 좋으며 차량?장비·인력 등이 원활하게 통행이 가능한 곳에 설치된다.

뉴시스

해운대는 벌써 한여름 징검다리 연휴 마지막 날인 22일 부산 해운대해수욕장을 찾은 시민과 관광객들이 물놀이를 즐기고 있다.

광주청년단체, 청년드림사업 '제동'…"우수정책 아냐"

광주시의 대표적인 청년정책인 광주 청년드림사업에 대해 광주지역 청년단체가 "우수 사업이 아니다"며 제동을 걸고 나섰다.

청년정책네트워크(이하 청년넷)는 22일 보도자료를 통해 "제53회 광주 시민의 날 시민정책마켓에 청년드림사업이 우수정책으로 선정된 것에 대해 유감"이라고 밝혔다.

청년넷은 부풀려진 채용정보, 허울뿐인 블라인드 채용, 참여자수 축소 등을 이유로 들었다.

청년넷은 "일자리 우수 사례 발표대회에서 발표된 정규직 채용 44명(31%)은 거짓 정보로 직무현장인 드림터에 채용된 정규직은 단 8명(5.7%)에 그쳤고, 블라인드 채용이라면서 학력과 학교명을 버젓이 쓰게 하는 신청서를 사용했다"며 면접관의 불성실한 태도와 면접자에게 등급을 매기는 점을 지적했다.

또 "3기 청년드림 참여자는 아무런 설명없이 300명에서 250명으로 줄었다"며 "줄어든 50명의 청년이 받았어야 할 일 경험수당 2억5000만원은 어디로 갔는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청년넷은 "민선 6기 광주시 청년정책은 '전국 최초'를 남발했고 일자리 정책, 취업률 제고 등 단편적이고 고민없는 시도들이 많았다"며 "과도한 성과 부풀리기식 홍보로 피해 보고 상처받은 청년들은 또 다시 마음을 닫고 사회에 대한 신뢰를 내려놓는다"고 강조했다.

또한 "청년드림사업 뿐 아니라 청년드림수당, 청년도시컨퍼런스 등 핵심사업들이 줄줄이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며 "그간의 청년정책이 제대로 운영됐는지 꼼꼼이 재점검해봐야 할 시기"라며 "문제 해결을 위해 시민정책마켓 현장에서 1인 시위와 유인물을 배포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한편 광주 청년드림사업은 청년의 자립과 생활 안정을 위해 고용, 부채, 주거의 3분야로 나눠 일자립 드림, 금융복지 드림, 주거서비스 드림으로 구성됐으며, 최근 청와대 일자리수석실에서 열린 청년일자리 대책회의에 소개될 만큼 전국적 성공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언급한 유럽의 청년보장 정책이 지역여건에 맞게 준비돼 광주형 청년보장으로 큰 기대를 받고 있다.

시는 "선도적인 추진 경험을 바탕으로 청년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해 나열식 단위사업을 지양하고 여러 후속지원을 마련할 예정"이며 "광주형 청년보장 외에도 청년의 삶을 지원하는 청년정책의 관점에서 다양한 시범모델을 통해 청년일자리 정책을 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은홍 기자

인도네시아 므라피 화산 분출 시작

인도네시아 자바 섬의 므라피 화산이 또다시 분화를 시작하면서 3500m 높이의 화산재 기둥을 뿜기 시작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21일 오후 11시를 기해 화산 경보단계를 '주의'로 상향했다. 다음날엔 화산 반경 3km 내 주민 660여 명을 긴급 대피시켰다.

관광도시인 욕야카르타에서 30km 떨어진 므라피 화산은 4년 만인 지난 11일 활동을 재개했다. 므라피 화산이 뿜어낸 화산재는 이날 5500m 높이까지 치솟았다.

인도네시아 재난 당국은 현지시간으로 전날 므라피 화산의 경보단계를 전체 4단계 중 1단계 '보통'에서 2단계인 '주의'로 상향 조정했다.

400여 만 명이 거주하는 욕야카르타 주변에는 므라피 화산을 중심으로 120여 개의 화산이 몰려 있다. 므라피 화산은 지난 2010년에도 대규모 분화를 일으켜 347명이 숨지고, 2만 여명의 이재민을 낸 바 있다.

美서 시신 팔고 유족에 다른 '재' 준 업자 재판

의학연구용 시신들을 판매하면서 시체를 여러 부분으로 나눠 중복 판매한 뒤 유족에게는 엉뚱한 화장 '재'를 건네줘 이득을 챙겨 온 디트로이트 지역의 한 시신 거래업자가 21일(현지시간) 재판을 받았다. 이 법정에서는 연방수사국(FBI) 요원이 그같은 범죄 내용을 증언했다.

아서 래스번은 이 범죄로 사기 및 위험물질 송부 혐의로 중형을 받게 될 전망이다.

인간의 시신을 판매하는 일은 매우 드물기는 하지만 대개는 합법이며, 특히 미국에서는 시신의 각 부분들이 의대의 실습용으로 쓰일 때에는 문제가 없다. 하지만 래스번은 지난 1월에도 제공한 시신들이 에이즈(HIV)나 C형 감염 여부에 대해 전문기관의 검사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소돼 유죄판결을 받은 적이 있었다.

이번에는 일리노이주 생물자원센터에서 인수한 시신들을 조각 내 부위별로 의료기관과 의대에 공급하는 과정에서, 돈이 되기만 하면 약정된 부위 이상을 여러 곳에 판매한 뒤 엉뚱한 재를 채워 유족에게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그에게 최고 14년 형을 구형하고 21~22일 재판을 계속한다.

레스번은 시신의 남은 부분은 화장해서 그대로 유족에게 돌려줘야 하는데도, 아직 팔만한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대개 "뭔가 다른 물질"을 유족에게 보낸 것으로 그의 직원들이 연방수사관에게 말했다고 한다.

이에 법정에서는 피해자 중의 한 명인 일리노이주 캔커위 주민 트레이시 스몰카가 증인으로 나왔다. 그녀의 부친은 루게릭병(일명 ALS)으로 2010년 사망했으며 그의 시신은 연구용으로 기증된 후에 나머지 부분은 화장하기로 되어있었다. 그의 시신은 다른 감염성 질병은 없는 것으로 판정되었다.

하지만 스몰카는 아버지의 시신 중 머리 부분이 화장한 재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것을 나중에 수사진이 그의 창고를 수색해 머리를 발견하기 전까지는 몰랐다고 말했다. 래스번이 머리를 다른 곳에 500달러에 팔려고 빼놓은 것이다.

스몰카는 법정에서 "이건 정말 비열하고 악랄하며 구역질나는 범죄"라고 말한 뒤 래스번을 향해서 "지옥에나 가서 불에 타라"고 말했다.

인도서 니파 바이러스 의심 사망자 9명 발생

인도 남부 케랄라주에서 치명적인 니파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거나 의심되는 사망자가 9명 발생했다고 인도 보건 관리들이 21일 밝혔다.

영국 BBC 방송에 따르면, 지난 2주 사이 숨진 9명 가운데 3명은 니파 바이러스에 양성 반응을 나타냈으며 나머지 6명의 감염 여부에 대한 최종 결과는 21일 밤 늦게나 나올 예정이다.

관리들은 케랄라주 코지코드에서 25명이 니파 바이러스 감염 증세로 입원해 치료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니파 바이러스는 동물로부터 인간에게로 전염되는데 아직 백신이 개발되지 않았으며 치사율은 70%에 이른다. 세계보건기구(WHO)는 니파 바이러스를 앞으로 창궐 위험성이 높은 10개 최우선 경계 질병 중 하나로 꼽았다.

라지브 사다난단 케랄라주 보건장관은 사망자 가운데 1명은 환자를 돌보던 간호사라고 밝혔다. 사다난단은 모든 의심 사망자의 혈액 및 체액 샘플을 푼의 국립바이러스학연구소로 보내 확인을 의뢰했다며 지금까지는 3명만 니파 바이러스로 인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그는 확산을 막기 위한 예방적 조처가 매우 중요하다고 덧붙였다.